

2019 인도 총선 주요 이슈와 전망

김도연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김도연 전문연구원
(dykim@kiep.go.kr, Tel: 044-414-1257)

윤지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윤지현 연구원
(chyun@kiep.go.kr, Tel: 044-414-1327)



차 례

1. 머리말
2. 총선 개요
3. 2019 총선 주요 이슈
4. 전망

주요 내용

- ▶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국가인 인도의 2019년 총선이 4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총 7기(phase)에 걸쳐 치러지며, 투표 결과는 5월 23일에 발표될 예정임.
 - 하원 543석을 선출하는 이번 총선은 인도를 고성장 신흥대국으로 부상시킨 모디 총리의 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선거임.
 - 한·인 간의 협력이 전례 없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총선은 양국간 경제, 정치, 안보 등 다방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2019 인도 총선의 핵심 이슈는 '일자리', '농민 및 농촌' 문제로 2014년 총선과 비교해 경제 및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부상함.
 - [일자리] 인도경제는 2014~18년 연평균 7%대의 고성장을 보였으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45년 만에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는 등,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에 대한 청년층의 우려와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 [농민 및 농촌] 모디 총리는 2014 총선 당시 인도 전체 노동인구의 절반이 종사하고 있는 농업을 장려하고 2022년까지 농민 임금 2배 상승을 약속했으나 최근 주요 작물 가격의 폭락 등으로 농민층의 '반(反) BJP 민심'이 강하게 일고 있음.
 - 아울러, 지역 및 카스트 등을 지지기반으로 한 지역정당의 세력이 강해짐에 따라 최근 인도 선거는 'INC', 'BJP', '지역정당'이라는 삼자 구도 경쟁으로 변모하고 있음.
 - 인도가 모디노믹스(Modinomics) 효과에 힘입어 세계 6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면서 2018년 중반까지 모디 총리의 연임이 확실시되었으나, 2018년 말 마디아프라데시 등 주요 지지기반이었던 지역의 주의회 선거에서 참패하는 등 BJP가 소속된 국민민주연합(NDA: National Democratic Alliance)의 승리가 불확실해지고 있음.
- ▶ NDA가 재집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BJP의 과반의석 확보 여부'가 차기 인도 정권 수립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는 신남방정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 머리말

■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국가인 인도의 2019년 총선 투표 일정이 4월 11일 시작될 예정임.

- 인도 총선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정치 행사 중 하나로서, 하원 543석을 두고 9억 명에 가까운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됨.
- 유권자 수는 세계 최대 규모인 약 8억 7,500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에 맞춰 약 100만 개의 투표소가 마련될 예정
- 2014년 총선에서는 유권자 수가 약 8억 3,000만 명, 참가 정당이 464개, 입후보자가 8,251명이었음.
-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를, 2019년 2월에는 모디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는 등 한·인도 간 협력이 전례 없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총선은 양국간 경제, 정치, 안보 등 다방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번 총선은 인도를 고성장 신흥대국으로 부상시킨 모디 총리의 연임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

- 인도가 모디노믹스(Modinomics) 효과에 힘입어 연평균 7%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 세계 6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함에 따라, 2018년 중반까지 모디 총리의 연임이 확실시되었음.
- 그러나 개혁개방과 투자활성화 중심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농가 소득증대 및 일자리 확대정책의 부진으로 농민과 청년층에서 모디 정부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었고, 이에 연방여당인 인도인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에 대한 지지율이 눈에 띄게 떨어지며 모디 정부의 재집권 여부가 다소 불투명해짐.
- 2014년 총선에서 BJP는 지난 30년간 단일 정당이 차지한 최다 의석인 282석을, 연정 구성으로는 총 336석을 차지하며 연방여당으로 집권했으며, 인도국민회의(INC: India National Congress)는 44개석 확보에 그친 바 있음.¹⁾
- 최근에는 파키스탄과의 군사충돌²⁾ 여파로 보수층이 재결집하면서 모디 총리의 재선 가능성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음.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2019년 총선 개요, 총선의 핵심 이슈들을 차례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자 함.

1) BJP의 압도적인 승리는 지속된 경기침체와 2G 관련 부패(2010년 인도 감사원이 2008년 2G 이동통신 주파수 배분과 관련하여 싱 정부가 부적격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약 40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연관됨)로 인한 INC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과 나렌드라 모디의 강력한 리더십과 경제발전정책에 대한 인기 등에 기인.

2) 2019년 2월 14일 파키스탄령 카슈미르를 근거지로 하는 무장단체(JeM)의 자살폭탄 테러로 인도 경찰 40여 명이 사망함에 따라 인도의 보복 공습과 파키스탄의 인도 공군기 격추로 양국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함.

2. 총선 개요

■ 인도의 17대 하원(Lok Sabha)³⁾을 구성하는 이번 총선은 2019년 4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총 7기(phase)에 걸쳐 치러지며, 투표 결과는 5월 23일에 발표될 예정

- 총선은 5년마다 실시되며 총선 결과에 따라 연방여당과 총리가 결정됨.
- 하원 545석 가운데 543석은 29개 주와 7개의 연방직할지(union territory)에서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나머지 2석은 영국계 인도인(Anglo-India) 커뮤니티에서 대통령 지명으로 선출
- 과반의석인 273석을 확보하는 당이 연방여당으로 집권하게 되며, 의회 다수당 또는 연립정당이 행정부의 실질 권한을 갖는 총리를 지명⁴⁾
- 이번 총선 투표는 4월 11일 20개주를 시작으로 총 일곱 차례에 나누어 실시되며, 안드라프라데시(4월 11일)나 구자라트(4월 23일), 델리(5월 12일) 등은 하루 동안 실시하는 반면 마하라슈트라는 네 차례(4월 11일~29일), 우타르프라데시나 웨스트벵골은 지역구별로 나누어 총 일곱 차례에 나누어 실시하는 등 투표 일정이 상이함(그림 1 참고).

그림 1. 인도 2019년 총선 투표 일정



구역	순서	일자	실시 지역	의석 수
	1기	4월 11일	20개주	91
	2기	4월 18일	13개주	97
	3기	4월 23일	14개주	115
	4기	4월 29일	9개주	71
	5기	5월 6일	7개주	51
	6기	5월 12일	7개주	59
	7기	5월 19일	8개주	59

자료: Election Commission of India(<https://eci.gov.in/general-election/general-elections-2019/>, 검색일: 2019. 3. 22).

- 구역별 선거 추진 일정에 따라 입후보자 등록 및 취소는 3월 28일과 5월 2일 사이 마감되며, 선거운동 기간에 각 정당들과 입후보자들은 선거 행동강령(MCC: Model Code of Conduct)⁵⁾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MCC는 인도선거관리위원회(ECI: Election Commission of India)의 총선 일정 발표일인 3월 10일에 발효되었으며, 일반규범, 집회 및 공개 출연, 투표일, 참관인, 투표소, 선거공약 등과 관련된 포괄적인 선거 지침을 규정

3) 인도의 의회제도는 상원(Rajya Sabha)과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상원은 총 238명으로 인구규모에 따라 주 의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되며, 6년 임기로 2년마다 1/3씩 교체됨. 하원은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의석수는 각 주의 인구 비례로 할당제, 임기는 5년임.

4) 인도는 의원내각제를 취하며, 실질적인 권한은 총리가 행사함. 대통령은 관행적으로 의회의 지배 정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선거인단(상·하원, 주의회 의원으로 구성)에 의해 선출됨.

5) Model Code of Conduct for the Guidance of the Political Parties and Candidates.

■ BJP와 INC로 대표되는 다당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에 대한 지지세 약화로 여당과 야당 간 연합세력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인도는 크게 BJP가 이끄는 국민민주연합(NDA: National Democratic Alliance)과 INC가 이끄는 통일 진보연합(UPA: United Progressive Alliance)을 중심으로 다당체제를 구성하고 있음.
- 라훌 간디(Rahul Gandhi)가 이끄는 INC는 1885년 창당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정당으로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을 고수하는 반면, 모디 총리가 이끄는 BJP는 1980년 힌두 기반으로 창당되어 경제자유화를 앞세워 기업가들과 중산층의 지지 아래 INC와 대등한 정당으로 성장
- 이 외에도 인도공산당(CPM: Communist Party of India(Marxist))이 이끄는 좌파(Left Front)와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당이 다수
- 2019년 3월 15일 기준(선거관리위원회 발표) 인도 정당 수는 2,101개로 7개의 전국정당, 63개의 지역정당, 2,031개의 기타(unrecognized) 정당으로 구분(부록 표 1 참고)
- BJP와 INC는 여러 정당들을 결집한 정치플랫폼을 구성하고 소속 정당들과 협상을 지속함으로써 정치세력을 확보하고 있음.⁶⁾
- BJP는 2018년 3월 텔루구데삼당(TDP: Telugu Desam Party)의 탈퇴를 시작으로 RLSP(2018. 12), AGP(2019. 1), GJM(2019. 1)이 줄줄이 NDA를 탈퇴하면서 위기에 직면하는 듯 했으나, AIADMK와 PMK(2019. 2), SKM(2019. 3)이 새롭게 연대에 합의하고 AGP(2019. 3)와 다시 재결합하는 등 지지세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⁷⁾
- 한편 트리나물콩그레스(AITC: All India Trinamool Congress 또는 TMC)가 야당연합(Mahagathbandhan 또는 Federal Front)을 새로 구성하면서 NDA의 새로운 경쟁자로 부상

표 1. 인도 정당체제

구분	NDA	UPA	Mahagathbandhan
최대 정당	BJP	INC	AITC
소속 정당수	39	31	16
소속 정당	AIADMK, SHS, JD(U), LJP 등	NCP, RJD, DMK, RLSP 등	TDP, SP, BSP, RLD, DMK, JD(S), TRS 등**
하원의석 수*	341/545	69/545	69/545
상원의석 수*	101/245	66/245	41/245
정치성향	중도우파/우파	중도좌파	중도좌파

주: * 2019년 2월 19일 기준.

** BMK, JD(S) 등은 UPA에 중복으로 소속.

자료: Wikipedia(검색일: 2019. 3. 27) 바탕으로 저자 작성.

6) 특정 정당이 하원의석의 과반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정당 간 연합을 구축하여 정부를 구성함.

7) RLSP: Rashtriya Lok Samta Party(비하르), AGP: Asom Gana Parishad(아삼), GJM: Gorkha Janmukti Morcha(웨스트벵골), AIADMK: All India Anna Dravida Munnetra Kazhagam(타밀나두), PMK: Pattali Makkal Katchi(타밀나두), SKM: Sikkim Krantikari Morcha(시킵).

■ 특히 의석 비중이 높은 우타르프라데시, 마하라슈트라, 비하르, 타밀나두 등에서 지역정당과의 연대를 통한 여야 경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며, 인도 중부(힌두 중심지역)에서의 여당 지지세 하락 역시 총선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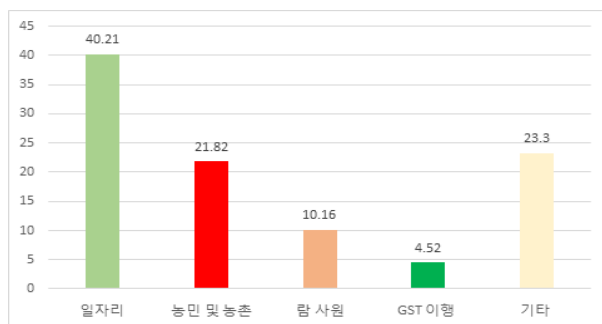
- 우타르프라데시, 마하라슈트라, 비하르는 2014년 총선 당시 BJP 승리의 주역으로, 이번에도 총선의 결과를 크게 좌우할 것으로 전망됨.⁸⁾
- BJP는 마하라슈트라, 비하르, 타밀나두 등 여러 지역에서 지역정당과의 연대를 통해 지지세 확산을 모색하고 있음.
- 청년층과 농민들의 불만으로 인한 BJP의 지지기반 약화는 특히 2014년 총선 당시 BJP를 강하게 지지했던 인도 중부지역에서 가시화되고 있음.
- 주요 주별 정당 지지도는 [부록 글상자 1](연방 29개주와 7개의 연방직할지 가운데 총선의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분석) 참고

3. 2019 총선 주요 이슈

■ 2019년 인도 총선의 주요 이슈는 △일자리 △농민·농촌 △종교 △안보 △여성 등으로 2014년과 비교해 경제 및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부상했으며, 특히 일자리와 농촌 관련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언급되고 있음.

그림 2. 2019 인도 총선 주요 이슈

(단위: %)



자료: Times of India 여론 조사(검색일: 2019. 3. 19).

표 2. 2014년과 2019년 총선 주요 이슈 비교

연도	경제	사회, 문화
2014	경제 발전, 농촌 경제, 인플레이션	부패, 안보
2019	일자리, 농촌 경제	람 사원 건설, 종교, 여성

자료: 현지언론을 종합하여 저자 작성.

- 2014년 총선에서 BJP는 모디의 강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민생안정, 경제 활성화를 약속하며 관련 공약을 강조,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바 있음.⁹⁾

8) The Economic Times(2019. 2. 17), "Uttar Pradesh, Bihar, Maharashtra key for BJP in Lok Sabha polls"(검색일: 2019. 3. 26).

9) 2013년 인도는 사상 최대 규모의 경상수지 적자 및 물가 상승(7%) 등으로 지속적인 경기침체 현상이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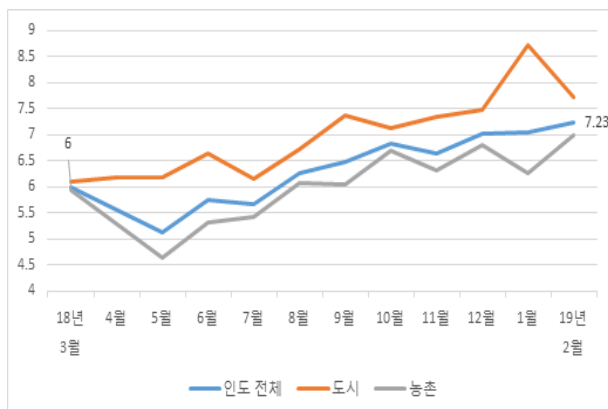
- [경제 활성화] 제조업 확대를 통한 향후 10년 내 2억 5,000만 개의 일자리 창출계획 발표, 이에 인도 전체 유권자의 2/3을 구성하고 있는 청년층(35세 미만)은 모디와 BJP에 강한 신뢰를 표출함.¹⁰⁾
- [민생 안정] 인도 전체 노동인구의 절반이 종사하고 있는 농업분야 인프라 개선 및 투자와 2022년까지 농민 임금 2배 상승을 약속

■ [일자리] 인도경제는 2014~18년 연평균 7%대의 고성장을 보였으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높은 실업률을 보이며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에 대한 청년층의 우려와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 인도경제모니터링센터(CMIE: Centre for Monitoring Indian Economy)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2월 기준 인도의 실업률은 7.23%로 2016년 9월(8.3%)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 취업자 수의 경우 2018년 12월 기준 3억 9,700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2018년 한 해 동안 약 1,1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그중 농촌지역의 실업자가 약 910만 명, 도시 실업자가 200만 명으로 농촌지역의 일자리가 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도 언론사 Business Standard는 2019년 1월 인도 국가표본조사기구(NSSO)가 조사한 2017/18년 실업률이 6.1%를 기록, 4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발표함.¹¹⁾
- 모디 정부는 제조업 관련 '메이크인 인디아' 정책을 통해 2022년까지 1억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FDI 규제 완화, 스킬인디아와 같은 정책을 보완 추진하였으나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해 실패했다는 의견과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평가가 엇갈림.

그림 3. 인도 실업률(2018년 3월~2019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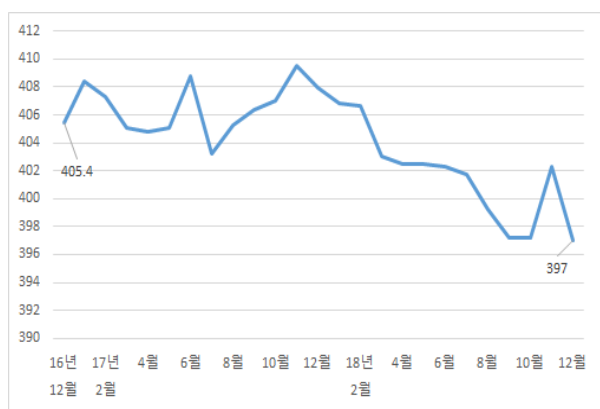
(단위: %)



자료: CMIE(검색일: 2019. 3. 18).

그림 4. 인도 취업자 수(2016년 12월~2018년 12월)

(단위: 백만 명)



자료: CMIE(검색일: 2019. 3. 29).

10) IMF(2019)에 따르면, 인도의 청년실업률은 개발도상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최근 교육수준 향상과 스마트폰 이용이 증가하면서 청년의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과 표현이 활발해지고 있음.

11) Business Standard(2019. 1. 31), "India's unemployment rate hit 45-year high in 2017-18: report"(검색일: 2019. 3. 29). 1972/3년은 글로벌 오일 쇼크 및 인-파키스탄 전쟁으로 5.18%의 실업률을 기록함. 인도정부는 해당 보고서가 초안이라고 주장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 민감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인도의 실업 및 고용에 관한 최신 정부 공식 자료는 발표된 내용이 없는 상황임.

- 인도의 고용은 농업을 비롯해 비공식 분야(unorganized sector)¹²⁾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로, 이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의미함.¹³⁾
 - 비공식 분야는 대부분 농촌, 도시의 비법인(근로자 10명 미만) 영세 자영업(가족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불규칙한 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기술 훈련을 포함한 각종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음.
 - △인도 노동인구의 절반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농번기를 제외한 기간에 대체할 일자리 부족 △최근 인도 내 농업기피현상 △인구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실업률 상승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¹⁴⁾
 - 15차 인도 인구조사에 따르면, 인도 청년층의 실업률은 고학력일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농촌보다는 도시가 2~3배 이상 높고 남성보다 여성의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¹⁵⁾
- 2019 총선유권자 중 약 6억 명이 경제, 일자리에 관심이 많은 청년층으로, 힌두스탄 타임즈, NDTV 등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들은 더 많은 일자리와 기회를 가져다줄 정당에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함.
 - 2017년 기준 인도 인구의 평균연령은 25세이며, 2027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노동인력을 보유할 것으로 예측됨.¹⁶⁾
 - 2018년 11월 인도민주청년동맹(DYFI, Democratic Youth Federation of India) 중심으로 약 1만여 명의 청년들이 실업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며 모디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짐.
- [공약] 인도 주요 정당들은 일자리를 2019년 선거의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관련 공약을 발표하였음.
 - BJP는 2014년 공약을 바탕으로 대규모 인프라 확충(100조 루피)과 공공/민간 투자 확대를 약속,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시너지 효과를 강조함.
 - INC 라홀 간디는 2019년 3월 25일 인도 내 빈곤을 박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최저임금지원제도를 발표했으며, 마하가트반단을 이끌고 있는 마마타 베네르지는 각 주별, 지역별 특성을 존중하고 환경에 맞는 노동 시장을 조성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함.

표 3. 일자리 관련 정당별 공약 주요 내용

BJP	[2014] - 제조업 활성화를 통한 향후 10년 내 2억 5,000만 개 일자리 창출 - 매년 1,000만 개 일자리 창출 [2019] - 클러스터, 네트워크 구축 확대를 통한 고용 창출 장려 - 북동부지역 중소기업(Entrepreneurial Northeast) 지원 - 22개 주요 분야(Champions Sectors: 방위, 제약 등)를 지정 및 고용 창출 - 4차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제조업 및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 - 스타트업 지원: 500만 루피까지 무담보 대출 지원, 하층 카스트의 창업을 지원하는 스탠드업 인디아(Stand up India) 시행
-----	--

12) ILO(2018)에 따르면, 인도 근로자의 약 81%가 비공식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임.

13) 2019년 2월, 인도 철도청이 실시한 공개채용(청소부, 경비, 집꾼 등의 단순 업무)에 고학력자를 포함해 약 1,900만 명이 응시, 300: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음. 인도사회발전연구센터(CSDS: Centre for the Study of Developing Society)가 2017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도의 청년들은 직업으로 공무원(Sarkari Naukri)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006년 62% → 2016년 65%), 그 배경으로는 안정된 직업이라는 인식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14) Digital Learning(2017. 12. 8), "Unemployment in India"(검색일: 2019. 4. 9).

15) 본 자료는 2011~12 인도 센서스 조사에 근거함. 인도는 10년을 주기로 인구 총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 조사는 2021년에 실시될 예정임.

16) Live Mint(2017. 9. 8), "India's burgeoning youth are the world's future"(검색일: 2019. 3. 20).

INC	- 최저임금지원, Nyutam Aay Yojana: 소득 하위 20%의 가구에 연 72,000루피(약 118만 원)를 지급하는 것으로, 수혜 대상은 5,000만 가구(약 2억 5,000명)로 예상 - 연방정부 공석 40만 개를 2020년 3월까지 채용 - 촌락 및 소도시 행정자치기구(gram panchayat) 일자리 100만 개 창출 - 여성 고용 장려, 100인 이상 고용 기업에 인센티브 지급 - 산업·서비스·고용부(Ministry of Industry, Services and Employment) 창설 - 스타트업 지원: 현재 벤처기업에 부과되고 있는 천사세(Angel Tax)¹⁷⁾를 포함하여 신규 스타트업에 향후 3년간 허가제 및 규제를 철폐, 대출 절차 간소화 등
AITC	- 가공식품, 관광 산업 장려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웨스트벵골 성공 사례 확대: 청소년 및 여성 개발 프로그램, 장학금 제도 - 비공식 분야 노동자를 대상으로 기술 교육, 마케팅 지원 - 기타 하층 카스트 대상 교육 기회 제공, 직업 할당제, 영세기업 대상 대출 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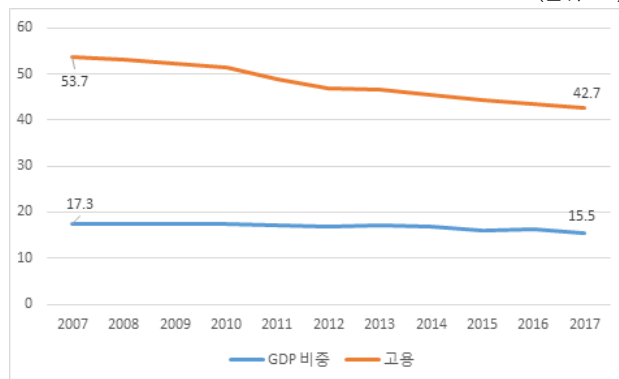
자료: 현지언론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농민 및 농촌 경제의 불안정성] 농민은 2014년 인도 총선 시 BJP가 승리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핵심 지지층이었으나, 최근 '반(反)모디 세력'으로 돌아서고 있음.

- 인도는 인구의 약 66%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며, 노동인구의 약 43%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 한편, 농업이 인도 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대다수의 농업 종사자가 영세농으로 여전히 전통적 방식에 의존하고 있으며, 관개시설 및 유통 관련 인프라가 매우 낙후되어 있기 때문임.¹⁸⁾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인도는 세계 2위의 쌀 수출국이나, 생산성은 세계 54위로 중국(12위), 베트남 (25위), 방글라데시(44위)보다 낮음.
- CSDS가 2014년 약 5,300여 농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약 40%의 농민이 농업이 싫다고 응답, 가장 큰 이유로는 소득의 불안정성을 꼽았고 관련 애로점으로는 관개시설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음.

그림 5. 인도 농업의 GDP 및 고용 비중

(단위: %)



자료: World Bank(검색일: 2019. 3. 22).

17) 스타트업이 시장의 평가를 넘는 투자를 받았을 경우, 그 잉여 투자금에 대해 3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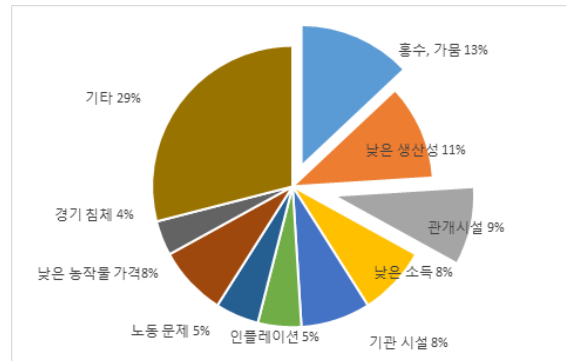
18) 농기계 구입 여력이 없는 많은 영세농은 대출을 통해 농기계 등을 대여하나, 수확물이 적절한 수입으로 이어지지 못해 부채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실정임.

표 4. 농업이 싫은 이유

세부 내용	비중
소득의 불안정	36%
장래성 없음	16%
이직을 희망함	9%
다른 선택권 없음 (가게 유지)	18%
스트레스, 위험성	8%
기타	13%

자료: CSDS(검색일: 2019. 3. 22).

그림 6. 농업 관련 애로점



자료: CSDS(검색일: 2019. 3. 22).

- 아울러, 2016년 11월 단행한 화폐개혁(Demonetization)¹⁹⁾은 현금 사용이 높은 농민에게 큰 혼란을 초래했으며, 최근 양파 및 감자와 같은 주요 식품가격이 폭락하며 농가 상황이 악화되었음.²⁰⁾
- 모디 정부에 대한 농민의 반 BJP 정서는 2018년에 실시된 인도 중북부지역(힌두벨트 및 농업중심지역) 5개 주의회 선거에서 BJP가 패하는 결과를 초래함.
- 이를 의식한 모디 정부는 2019/20년 잠정 예산의 약 10%를 농업 분야에 배정하고 현금 지원제도 (PM-KISAN) 대상을 인도 농민 전체로 확대하는 등 농가 민심 되돌리기에 주력하고 있음.
- 한편 INC의 라훌 간디는 2019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현재 라자스탄, 차티스가르 등 지역에서 시행 중인 농민부채 탕감제도를 전 인도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공약함.²¹⁾
- AITC는 농업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1에이커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농민에게도 최소 1,000루피를 지급하는 재정지원 공약을 발표하였음.

표 5. 농업 관련 정당별 공약 주요 내용

정당	주요 내용
BJP	- 농민임금 보전제도(PM-KISAN: Pradhan Mantri Kisan SAMman Nidhi) 확대: 영세 농가(2헥타르 이하 토지 소유)에 연간 6,000루피(약 95,000원)를 계좌로 직접 지급 → 인도 전체 농가로 확대 시행 - 영세농민을 위한 연금 제도 시행 - 전용 카드(Kisan Credit Card)를 통해 대출 받는 축산업 및 어업 종사자에게 이자 보조금 지급 - 어업 관련 별도의 조직(수산부) 신설 - 작물 유통과 저장 창고 구축 및 확대

19) 인도정부는 불법자금 및 위조지폐 척결과 디지털거래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2016년 11월 9일 자정부로 고액권인 500루피권과 1,000루피권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50일간 신규 발행된 500루피권과 2,000루피권으로 교환하도록 하는 화폐개혁을 실시함. 갑작스러운 화폐개혁은 고액권을 대체할 신규 지폐권 부족과 ATM 준비 미흡 등으로 현금유통 부족을 초래했으며, 이로 인한 급격한 소비위축과 생산감소는 GST 도입 효과와 겹치면서 경기둔화를 가져옴(세부 내용은 윤지현, 조충제(2018), 「신남방시대, 인도 모디노믹스 성과와 한·인도 협력과 협력과제」, KIEP 오늘의 세계 경제, Vol. 18, No. 25 참고).

20) 2017년 11월 양파 100kg당 가격은 2,593루피 → 2018년 11월 907루피로 하락.

21) NDTV(2019. 2. 3), "After Basic Income, Congress's Next Big Promise: Farm Loan Waiver For All"(검색일: 2019. 3. 28).

INC	- 농가 소득 지원 예산(Kisan Budget) 확대: 현재 일부 주에서 시행 중인 농민 부채 탕감 제도를 전 인도를 대상으로 시행 - 채무불이행에 대한 형사 처벌을 민사 문제로 처리 - 농업발전계획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Agriculture Development and Planning) 설립 - 농민 직거래 시장 설립 및 저장소, 가공식품 시설 등 인프라 개선
-----	---

자료: 정당 공약집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기타 주요 이슈로는 종교, 안보, 여성 등이 있음.

- [종교] 현지 주요언론은 인도의 종교적 양극화가 BJP 집권 아래 '힌두교 vs. 비(非)힌두교'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 대표적인 사례로는 람(Ram) 사원 재건 이슈가 있으며, 이슬람식 지명을 힌디식으로 변경하는 등 무슬림을 포함한 인도 내 소수종교를 향한 차별이 심화됨.²²⁾
- [안보] 안보는 다양한 종교와 부족이 공존하는 인도사회의 중요한 이슈이나 과거 총선과 비교해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됨.
 - 지난 2월 14일 카슈미르 풀와마(Pulwama) 지역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로 인도와 파키스탄 간 갈등이 한때 최고조를 보였으나 안보보다는 이슬람-힌두 갈등이라는 종교적 이슈로 논쟁이 되고 있음.
- [여성] 여성의 권리 향상과 사회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당별 공약을 강조함.
 - INC는 UPA 연합정권이 승리할 경우 33%의 정부 일자리를 여성에게 할당할 것이라고 했으며, AITC는 전체 총선 후보자의 41%를 여성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5. 전망

■ 인도의 높은 실업률과 농가 민심 이변으로 2019년 총선에서 BJP가 단독으로 과반 이상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NDA 연합을 통해 정권을 수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 4월 9월 기준 인도 현지매체 Times Now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NDA가 2014년 총선보다 57석이 모자란 279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함.
- 3월 기준 NDA 지지율 상승의 배경으로는 인·파키스탄 군사 충돌(풀와마 사태) 및 2019/20년 잠정예산의

22) 람 사원 재건 이슈는 힌두-무슬림 간의 갈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으로, 아요디아(Ayodhya)의 '바브리 마사지드(Babri Masjid, 모스크)'가 있는 장소는 원래 힌두교에서도 가장 칭송받는 신 중 하나인 람의 탄생지라는 힌두교도의 주장 아래 1992년 힌두-무슬림 간 유혈 사태가 발생하여 약 2,000명의 사상자가 생겼음. 바브리 마사지드는 파괴되었고 현재 람 사원 재건 관련사항은 대법원이 관할하고 있음. BJP 정당이 집권하고 있는 우타르 프라데쉬의 알라하바드(Allahabad)가 프라야그라즈(Prayagraj)로 변경되었으며 2018년 6월 같은 주에서 소를 도축했다는 의심만으로 한 무슬림 남성이 집단 구타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시혜적 정책들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됨.²³⁾

- 한편, 종교 및 카스트 등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지역정당이 INC와의 협력보다는 독립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BJP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세속주의(secularism) 정치이념을 원칙으로 국민을 포용했던 인도의 대표정당 INC는 네루 사망 이후 계파 분열과 인디라 간디의 독재적인 정당 운영으로 쇠퇴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라홀 간디, 프리양카 간디(Priyanka Gandhi)를 중심으로 쇄신을 시도하고 있으나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²⁴⁾

표 6. 인도 2019년 총선 여론조사 결과

발표	조사기관	조사결과		
		NDA	UPA	기타
2019.4.9.	TimesNow-VMR	279	149	115
2019.3.	TimesNow-VMR	283	135	125
	NewsNation	270	134	139
	ABPNews-Cvoter	264	141	138
	IndiaTV-CNX	285	126	132
	Zee24Taas	264	165	114
2019.1.	TimesNow-VMR	252	147	144
	ABPNews-Cvoter	233	167	143
	IndiaToday-Karvy	237	166	140
	VDPAssociates	225	167	150
2018.12.	IndiaToday	257	146	140
	ABPNews-CVoter	247	171	125
	IndiaTV-CNX	281	124	138
2018.1.	Republic-CVoter	335	89	119
	IndiaToday	309	102	132

자료: 언론보도자료 종합(검색일: 2019. 4. 9).

-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UPA와 기타 정당의 예상 득표수 합이 NDA와 큰 격차를 보이지 않아 NDA가 과반을 넘지 못할 경우, ‘정권교체’라는 큰 목적 달성을 위해 UPA와 기타 정당이 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BJP의 과반의석 확보 여부’가 차기 인도 정권 수립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이며, 신남방정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BJP가 과반 혹은 그 이상을 득표한다면, 인도 주요 정책(메이크인 인디아, 디지털 인디아 등)의 추진이 가속화되고 대 인도 경제 협력 범위도 확대될 것이므로 다른 나라와 차별화된 협력 방안을 선제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23) 2019/20 잠정예산안의 세부 내용은 김도연(2019), 「인도 2019/20 잠정 예산안 주요 내용 및 평가」, 이슈&트렌드, EMERiCs 참고.

24) 인도의 정치학자인 Rajni Kothari는 “과거 인도의 정치는 INC 중심의 다수 정당 구조로, INC는 모든 종교와 카스트가 집합하는 플랫폼이었으나 오늘날 간디家の 리더십 부재, 동맹에 대한 INC의 진정성 결여가 결국 INC의 추락, 지역정당의 독립성 강화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함.

- 모디 총리는 4월 8일 총선 공약 발표를 통해 2030년까지 인도를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시킬 것이며,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선정하는 기업환경평가(Ease of Doing Business) 순위를 50위까지 올리겠다고 강조함.
- UPA 혹은 지역정당 중심의 연합정부가 구성될 경우, 현 모디 정부가 추진하는 친시장·친기업적 경제정책 기조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정세변화에 따른 협력 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KIEP

부록

부록 표 1. 인도의 정당 구분 기준

구분	자격 조건	해당 정당
전국정당	· 3개 이상의 주에서 하원의석 2% 이상 확보 · 4개의 주에서 6% 이상의 득표와 및 하원의석 4석 확보 · 4개 이상의 주에서 지역정당으로 인정	7개 AITC, BSP, BJP, CPI, CPI-M, INC, NCP
지역정당	· 주의회 선거에서 의석의 3% 이상 또는 3석 이상 확보 · 해당 주에서 하원의석 25석당 1석 이상 또는 해당 주에 할당된 의석수에서 1석 이상 확보 · 총선/주의회 선거에서 득표율 6% 이상 확보 혹은 총선에서 의석 1석 이상 또는 주의회 선거에서 2석 이상 확보 · 총선/주의회 선거에서 의석 확보 불가 시, 해당 주에서 유효 득표율 최소 8% 이상 확보 또는 주에 관계없이 1석을 확보	63개 AAP, AIADMK, BJD, JD(S) 등
기타 정당	선관위에 등록되어있으나 상위 조건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 정당	2,031개

주: 열거된 조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됨.

자료: ECI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글상자 1. 지역별 정당 지지도

(1) [우타르프라데시(80석)] 최다인구와 최다의석수(전체 의석의 약 15%)를 보유하는 주로, BJP와 지역정당 연합 간 경쟁 구도에 주목

- 우타르프라데시는 2014년 총선에서 BJP가 80석 중 71개의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주이자, 2017년 총선거에서도 압도적인 표 차이로 과반의석을 확보했던 지역
- BJP에 대항하기 위해 우타르프라데시의 양대 라이벌 지역정당인 사마즈와디당(SP: Samajwadi Party)과 바후잔사마즈당(BSP: Bahujan Samaj Party) 간 연합이 결성된 가운데,²⁵⁾ 지역정당 연합과 BJP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
 - 3월 진행된 세 차례의 여론조사 결과는 NDA:SP-BSP가 각각 42:36, 35:43, 41:35로 집계
 - INC의 야권 연대 가담, 또는 야권의 분열이 BJP의 승리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

우타르프라데시 위치



자료: Wikipedia(검색일: 2019. 3. 25).

우타르프라데시 선거 결과

	2017년 주선거	2014년 총선	2009년 총선	2004년 총선
BJP	312	71	10	10
INC	7	2	22	9
BSP	19	0	20	19
SP	47	5	22	35
기타	18	2	6	7
합계	403	80		

자료: Elections.in(검색일: 2019. 3. 25).

(2) [마하라슈트라(48석)] 우타르프라데시 다음으로 최다 인구를 보유하며 산업화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BJP가 지역정당과의 연대를 통해 지지세 확산 모색

- BJP는 극우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지역정당인 시브세나당(SHS: Shiv Sena)과의 연대를 통해 의석수 확보를 꾀하고 있는바, NDA-SHS와 UPA-국민회의당(NCP: National Congress Party) 간 경합 구도에 주목
 - 시브세나당은 2014년 주의회 선거와 총선에서 BJP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의석수를 차지
 - 1월 진행된 세 차례의 여론조사 결과 NDA-SHS:UPA-NCP는 각각 28:20, 25:23, 30:18로 확인

마하라슈트라 위치



자료: Wikipedia(검색일: 2019. 3. 25).

마하라슈트라 선거 결과

	2014년 주선거	2014년 총선	2009년 총선	2004년 총선
BJP	122	23	9	13
SHS	63	18	11	12
INC	42	2	17	13
NCP	41	4	8	9
기타	20	1	3	1
합계	288	48		

자료: Elections.in, Wikipedia(검색일: 2019. 3. 25).

(3) [비하르(40석)] 빈곤율과 청년층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BJP와 INC간 지역정당과의 연대를 통한 경합 예상

- BJP는 기존의 NDA 연합정당인 록자나샤크티당(LJP: Lok Janashakti Party)과 2013년 연합을 탈퇴했다 다시 복귀한 자나타달유나이티드(JD(U): Janata Dal(United))와 연대에 성공하면서 라슈트리야 자나타달(RJD: Rashtriya Janata Dal)과 연합한 INC와 대결할 예정
 - 2009년 BJP와의 연정 당시 JD(U)는 20석을 확보했으나 2014년 단독으로 경쟁했을 당시에는 2개석 확보에 그친 바 있음.
- 지난해 7월 여론조사 결과(UPA 31석, NDA 9석, Spick Media)를 뒤엎고 1월 진행된 두 차례의 여론조사에서 NDA가 UPA를 크게 앞지름.
 - Spick Media는 NDA 24석, UPA 16석으로 집계했으며, ABP News-Cvoter는 각각 35석, 5석으로 집계

비하르 위치



자료: Wikipedia(검색일: 2019. 3. 26).

비하르 선거 결과

	2015년 주선거	2014년 총선	2009년 총선	2004년 총선
BJP	53	22	12	5
LJP	2	6	0	4
JD(U)	71	2	20	6
INC	27	2	2	3
RJD	80	4	4	22
기타	10	4	2	0
합계	243	40		

자료: Elections.in(검색일: 2019. 3. 25).

(4) [타밀나두(39석)] 마하라슈트라 다음으로 경제규모가 가장 큰 주로, UPA가 여론조사 결과 우세를 보이는 가운데 BJP의 집권당과의 연대 결성으로 의석 확보 모색

- BJP는 지난 2월, 전통적인 약세 지역인 타밀나두의 집권당 전인도안나드라비다 진보연맹(AIADMK: All India Anna Dravida Munnetra Kazhagam)과 연대 결성에 성공
 - 드라비다진보연맹(Dravida Munnetra Kazhagam, DMK)은 INC가 이끄는 UPA와 연대
- 3월 India TV-CNX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UPA와 NDA가 각각 22석, 15석으로 집계

타밀나두주 위치



타밀나두주 선거 결과

	2016년 주선거	2014년 총선	2009년 총선	2004년 총선
AIADMK	134	37	9	0
BJP	0	1	0	0
DMK	89	0	18	16
INC	8	0	8	10
기타	1	1	4	13
합계	232		39	

자료: Wikipedia (검색일: 2019.3.25.)

자료: Elections.in (검색일: 2019.3.25.)

(5) [안드라프라데시(25석²⁶)] 텡루구데삼당(TDP: Telugu Desam)의 NDA 탈퇴로 BJP 기반이 약화된 가운데, 지역정당 간의 대결에 이목 집중

- 2018년 3월부로 BJP-TDP 연정이 해체되었으며, 지역정당 간의 대결에서 YSR 국민회의(YSRCP: Yuvajana Sramika Rythu Congress Party)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짐.
- 1월 실시된 두 차례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YSRCP가 22석과 19석을, TDP는 3석, 6석으로 집계되었으며, UPA와 NDA는 의석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안드라프라데시 위치



안드라프라데시 선거 결과

	2014년 주선거	2014년 총선	2009년 총선	2004년 총선
TDP	103	15	6	5
YSRCP	66	8	-	-
BJP	4	2	0	0
INC	1	0	33	29
기타	1	0	3	8
합계	175	25	42	

자료: Wikipedia(검색일: 2019. 3. 26).

자료: Wikipedia, Elections.in(검색일: 2019. 3. 26).

(6) [오디샤(21석)²⁷] 총선을 앞두고 집권정당인 비주자나타달(BJD: Biju Janata Dal)에서 주요 인사들이 대거 이탈, BJP에 합류함에 따라 BJP의 지지세 확대 예상

- BJD 소속의 현직 하원의원(3명)과 주의회 의원(4명)들이 공천 실패를 이유로 대거 이탈²⁸)
- 1월 ABP News - Cvoter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NDA가 12석, BJD가 9석으로 집계된 가운데, 2014년 총선에서 한 개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던 BJP의 지지세 확대가 기대됨.

오디샤 위치



오디샤 선거 결과

	2014년 주선거	2014년 총선	2009년 총선	2004년 총선
BJD	117	20	14	11
BJP	10	1	0	7
INC	16	0	6	2
기타	4	0	1	1
합계	147		21	

자료: Wikipedia(검색일: 2019. 3. 26).

자료: Elections.in(검색일: 2019. 3. 26).

(7) [인도 중부 지역] 힌두 중심지역(Hindi heartland)인 마디아프라데시(29석), 구자라트(26석), 라자스탄(25석), 차티스가르(11석)에서 BJP의 지지세는 다소 약화될 가능성

- 마디아프라데시, 라자스탄, 차티스가르는 2014년 총선에서 BJP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으나, 지난해 11~12월 주의회 선거에서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와 BJP의 지지기반 약화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킨 바 있음.
 - 모디정부가 약속한 농가 소득증대 및 일자리 확대 정책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농민과 청년층 사이에서 불만이 확대된 데 기인²⁹⁾
- 3월 11일 News Nation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디아프라데시에서 21석, 라자스탄에서는 17석을 확보하며 BJP가 승리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차티스가르에서는 5개석 확보에 그칠 것으로 집계

인도 중부 주별 위치



주: 왼쪽 아래지역부터 시계방향으로 구자라트, 라자스탄, 마디아프라데시, 차티스가르

인도 중부 주별 선거 결과

	2018년 주선거	2014년 총선	2009년 총선	2004년 총선
마디아프라데시				
BJP	109	27	16	25
INC	114	2	12	4
기타	7	0	1	0
합계	230	29	29	29
라자스탄				
BJP	73	25	4	21
INC	99	0	20	4
기타	27	0	1	0
합계	199	25	25	25
차티스가르				
BJP	15	10	10	10
INC	68	1	1	1
기타	7	0	0	0
합계	90	11	11	11

자료: Wikipedia(검색일: 2019. 3. 26).

자료: Elections.in(검색일: 2019. 3. 26).

- 모디총리의 고향이자 인도에서 세 번째로 큰 GDP 규모를 자랑하는 구자라트에서도 BJP의 압도적인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
 - 2017년 주의회선거에서 BJP는 목표했던 150석에 훨씬 못 미치는 99석을 확보하는 데 그치면서 INC와의 격차가 좁혀짐.³⁰⁾
 - 3월 두 차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News Nation은 NDA가 21석, UPA가 5석으로 NDA의 압도적인 승리할 것으로 집계했으나 Spick Media는 13:13으로 박빙일 것으로 전망

구자라트 선거 결과

	2017년 주선거	2013년 주선거	2014년 총선	2009년 총선	2004년 총선
BJP	99	119	26	14	14
INC	77	57	0	12	12
기타	6	6	0	0	0
합계	182		26		

자료: Elections.in(검색일: 2019. 3. 26).

(8) 한편, 카르나타카에서는 INC가 지역정당과 연합하면서 BJP를 견제할 것으로 보이며, AITC가 집권하고 있는 웨스트벵골에서는 BJP가 여전히 약세일 것으로 예상

- [카르나타카(28석)] INC가 자나타달(JD(S): Janata Dal (Secular))과 연정을 꾀하면서 BJP의 지지세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짐.

- 지난 1월 두 차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NDA:UPA가 13:15, 14:14로 집계되며 대결구도 강화 전망

카르나타카 위치



카르나타카 선거 결과

	2018년 주선거	2014년 총선	2009년 총선	2004년 총선
BJP	104	17	18	17
INC	78	9	7	8
JD(S)	37	2	3	2
기타	3	0	0	1
합계	222	28		

자료: Wikipedia(검색일: 2019. 3. 26).

자료: Elections.in(검색일: 2019. 3. 26).

- [웨스트벵골(48석)] 2011년부터 주 정권을 장악해온 트리나몰콩그레스(All India Trinamool Congress, AITC 또는 TMC)는 현재 하원 42석 중 34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 주의회 선거에서도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한바,³¹⁾ AITC의 연이은 승리가 예상됨.

- AITC 소속의 마마타 바네르지(Mamata Banerjee) 웨스트벵골 주총리는 타도모디(Modi), 정권교체를 강하게 주장하며 BJP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대표적인 야권 지도자로 손꼽힘.³²⁾
- 지난 1월 Republic Tv - Cvoter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AITC 34석, NDA 7석 확보 예상

웨스트벵골 위치



웨스트벵골 선거 결과

	2016년 주선거	2014년 총선	2009년 총선	2004년 총선
AITC	211	34	19	1
INC	44	4	6	6
CPM	26	2	9	26
BJP	3	2	2	0
기타	10	0	6	9
합계	294	42	42	42

자료: Wikipedia(검색일: 2019. 3. 25).

자료: Elections.in(검색일: 2019. 3. 25).

25) 2014년 총선 이전까지 우타르프라데시주의 양대 정당은 SP와 BSP로, 2012년 주의회선거에서 각각 224석과 80석을, 2007년 주의회선거에서는 97석과 206석을 차지한 바 있음.

26) 2014년 6월 텔렝가나가 새로운 주로 독립하면서 하원의석수는 안드라프라데시주 25석, 텔렝가나주 17석으로 분배.

27) 2011년 주명(名)을 오리사(Orissa)에서 오디샤(Odisha)로 변경.

28) Hindustan Times(2019. 3. 21), "Dozen BJD lawmakers quit Naveen Patnaik's party in last 7 days"(검색일: 2019. 3. 26).

29) 자세한 내용은 윤지현(2018. 12. 27), 「인도 5개 주의회 선거 결과와 평가, 이슈&트렌드, EMERiCs 참고.

30) 농민과 청년층의 생활고와 하층민 우대 정책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BJP 지지기반인 중산층 카스트 주도) 등으로 지지율 하락.

31) 2011년 이전에는 좌파(Left Front)가 34년간 정권 유지.

32) 지난 1월, 부정부패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앙수사국(CBI)과 주 경찰 간 갈등을 앞세워 모디 총리와 바네르지 주 총리가 강하게 충돌한 바 있음.